

기억 속 내재된 욕망...동화적 상상에 바치는 오마주



'I fail to fly again today but it's okay'



'Your stage is over'



'My Fantasy'



'Your stage is over'



'After Punch'

윤상하 초대전 'Good Night Snooze'...18일까지 예술공간집

현실·내면 혼재된 다양한 서사...무한한 꿈의 세계로 초대

동화적 환상과 현실 사이 내면세계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윤상하 작가 초대전이 마련됐다.

오는 18일까지 예술공간집에서 'Good Night Snooz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광주에서 열리는 작가의 첫 개인전이다.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 현대조형미디어 전공 졸업 이후 서울에서 본격적인 작업을 펼쳐온 지 4년, 국내를 비롯해 올해 중국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전시에서는 기존 작품들에서의 변화와 도전을 이야기하는 작가의 신작들을 만나볼 수 있다. 보다 진중한 내면세계를 다룬 회화와 드로잉 30여 점을 전시한다.

대학에서 미디어와 조각을 전공하고 졸업 이후 회화와 드로잉, 미디어를 복합적으로 다뤄온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선 순수 회화만을 선보인다.

작가 자신이 화자가 돼 스스로의 내면을 파헤치고, 작가로 나아가며 들었던 많은 생

각과 의지, 다짐을 시각화한 결과물이다. 현실과 허상이 뒤섞인 듯한 거친 화면 위 유희와 오일파스텔 등으로 자유롭게 그려진 그림과 무한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드로잉은 끝없이 고민하며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가는 작가의 고민과 열정을 충분히 보여준다. 전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잠에 안녕을 고하는 다양한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이전 작품들이 어릴 적 환상이나 현실 공간이 뒤섞이며 타자로서 자신의 작품을 들여다본 결과물이었다면, 최근작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내면과 현실을 융화시켜 다양한 화면으로 구사했다.

특히 드로잉은 작가의 특별한 표현기법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작품으로, 연필 중 가장

가는 굵기의 샤프를 사용해 그린 그림이 대다수다. 작가의 작업실, 어린 소년, 불면증 등 현실과 허구의 상상은 서로 어우러지며 마치 한편의 영화와 같은 이야기거리를 던져준다. 특히 이번 전시는 기획자와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김소진 독립기획자와 최근 국내에서 청년 작가들의 평문을 많이 써온 일본 비평가 콘노 유키가 비평문을 썼다.

비평가 콘노 유키는 "이번 신작에서는 선잠을 주인공 삼아 동화적인 서사를 회화 작업으로 펼쳐낸다"며 "폐쇄된 공간에서 픽션이 펼쳐지는 이전 작업과는 달리 이번 전시에서는 꿈이 끝으로 향하는 과정을 그려내

고 있다"고 평했다. 김소진 기획자는 "선잠은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경계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선잠에 빠져들면서 우리는 평소엔 감추고 있던 불안과 혼란, 욕망을 시각화한다"며 "윤상하의 그림 속 등장하는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를 인물은 현재에 투영된 작가의 또 다른 자화상으로 성장해 우리 앞에서 있다"고 밝혔다.

문화영 예술공간집 대표는 "윤상하 작가는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작가"라며 "예술공간집 전속작가제 지원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가 작가에게 또다른 전환점으로 역할하며 더욱 성장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수많은 집으로 빚어낸 '흔적의 빛', 사랑을 말하다

고차분 개인전, 13일부터 서울 프린트베이커리

좁좁한 작은 집의 형상을 통해 '집의 산물'에 관한 작업을 펼쳐내고 있는 고차분 작가가 연말을 맞이해 새로운 신작들로 전시를 마련했다.

'흔적의 빛'을 주제로 한 고차분 작가 개인전이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더현대 서울 2층 프린트베이커리에서 열린다.

작가는 인간 존재의 토대이면서 세상과 관계를 맺는 장소인 '집'의 변주를 통해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때껏 선보인 작품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집' 결과물을 선보인다. 끊임없이 깎아내고 다듬어 완성시킨 기존의 작업들과는 달리 날 것 그대로의 집 작품을 선보이는 것. 끊어내지 못했던 과거의 고통, 캔버스 앞에서 느꼈던 불안 등 내면세계를 오롯이 담아낸 신작 '흔적의 빛' 등 24점 작품을 전시한다.

고차분 작가는 "날카롭게 굳어있는 집이 마치 내면과 닮



'흔적의 빛'

아있다는 생각을 했다. 거칠고 불안정해보이는 흔적을 부드럽게 깎아낼 수 있는 건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정신과 내면의 참된 집이 완성될 때까지 집을 지어가는 작업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캔버스에 담아낸 여수 거문도·백도 비경

'섬 그리고 섬' 순회전, 22일까지 우제길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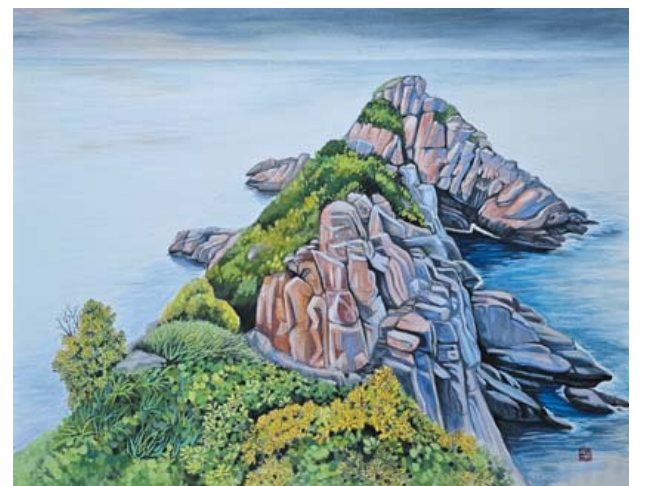
여수 섬 거문도·백도의 아름다운 경관과 비경이 담긴 전시가 마련됐다.

오는 22일까지 우제길미술관에서 열리는 순회전 '섬 그리고 섬'이다.

여수미술관과 협력해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여수 작가 김명숙·김상선·박근세·윤석현·이형모, 광주 작가 류미숙·장연희·정소영·천기정 등 10명 작가가 참여해 여수 10경 중 하나인 거문도와 백도의 모습을 담아낸 결과물을 선보인다.

서봉희 여수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천혜 비경 백도와 10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한 거문도의 모습을 담고자 종횡무진 탐방한 작가들의 결과물"이라며 "거문도의 아름다운 비경과 백도의 웅장한 모습을 통해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몸과 마음에 위안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섬 그리고 섬' 전시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김명숙작 '거문도 수월산 자락'

여수시에서 주최, 여수미술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여수와 서울에 이어 광주에서 마지막 순회전이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